

# 傳扶餘出土

## 蠟石製佛菩薩並立像攷

— 韓國佛에 끼친 北齊佛의 一影響 —

姜友邦

一、序言

二、形式·樣式

三、並坐像·並立像

四、河北의 雙樹形式白玉像

五、結語

### 一、序言

三國時代의 佛像으로서 아직까지 예가 없었던 이 佛菩薩並立像은 中國北齊時代에 있어서 一定한 場所 一定한 時期에 流行하였던 白玉製並立像을 反映하고 있는 점에서 그 당시 文化現象의 一斷面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中國佛像의 一般的 現象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形式 및 樣式, 그리고 造成時代의 比較考察이 명쾌할수 없지만, 中國의 特殊한 現象과 聯關될 때는 그 당시 文化現象이 비교적 손쉽게 解明될수 있을것 같다.

이 佛像은 어떤 經路로 慶州의 한 商店에 이르렀는지 알수 없지만 전하는 바에 의하면 扶餘근처에서 出土되었다한다①. 지금까지 수습된 蠟

石이라는 特異한 材料로 만든 佛像은 軍守里寺址出土 如來坐像이나 扶餘에서 集中的으로 出土된 思惟像 기타 佛菩薩의 斷片들과 같이 여러 形式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像도 그 一群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 佛像은 韓國에서 아직 분주 없었던 並立像이며, 또한 中國에도 없는 如來와 菩薩의 並立像이란 특이한 形式을 취하고 있는 동시에 樣式的으로는 北齊의 典型을 따르고 있어서 꽤 흥미롭다. 특히 이것은 中國河北省의 定縣과 曲陽縣地方(두 縣은 거의 인접하여 있음)에서 多量으로 出土되는 白玉像들과 形式과 樣式을 같이하고 있고 材料上으로도 白玉(白大理石)과 蠟石은 色感和 質感이 같아서 北齊時代의 白玉像을 이만 큼 충실히 反映한것도 드물다. 並立像외에 河北의 작은 白玉思惟像과 扶餘出土의 蠟石製思惟像도 서로 對應되는데 이로 미루어 定縣地方과 扶餘地方의 文化的 聯關性을 學論할수 있을것 같다.

그러나 이 佛像은 北齊佛의 충실한 受容가운데 그것과는 本質的으로 다른 佛菩薩並立이란 특이한 配置, 특이한 意匠, 背面의 變形等, 百濟特省의 形式的 變貌와 信仰의 內容을 지니고 있다.

### 二、形式·樣式

이 佛像은 前面에 오른쪽엔 菩薩을, 왼쪽엔 如來를 高浮彫로 並列하고 背面엔 山岳文을 流麗한 모양으로 조각했으며 밑에는 축이 있어서 어떤곳에 삽입하여 固定시키도록 考察하였다. 圖 1, 2, 3 그 전체적 意匠은 雁鴨池出土의 金銅三尊板佛과 같아서 龕內部에 安置했던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나 한편 臺座를 별도로 만들어 삽입했던것인지도 모르겠다.

왼쪽에 배치된 如來立像은 얼굴이 파손되어 그 세부를 전혀 알수 없다. 목에는 三道가 없다. 양손도와 손되어 자세히 보이지 않으나 施無畏印與願印의 通印이 분명하다. 大衣는 通肩衣形式이고 僧祇支가 가슴에 보인다. 大衣의 衣褶은 腹部에서 한 줄기의 陰刻線이 보일뿐이며 무릎부



圖 2. 背面



圖 1. 蠟石製佛菩薩並立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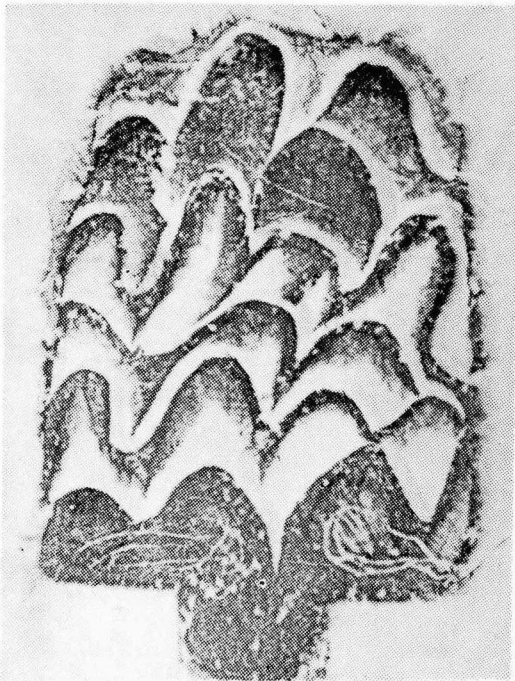


圖 3. 背面招本

분에 늘어진 자락은 隆起線으로 처리되어 慶州南山拜里三尊佛의 本尊과 같은 樣相이다. 裙衣에도 衣褶이 일체 없다. 오른쪽의 菩薩像도 衣褶이 거의 없는 卽히 簡略화된 形式인데 이러한 特點은 中國의 河北地方에서 출토되는 北齊時代 白玉像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腹部는 약간 불려있고 양다리 사이에 縱線이 보여서 肉身의 표현을 약간 시도하고 있다. 臺座는 약간 과손되었는데 三國期の 일반적인 形式과는 다르며 아무런 무늬가 없다. 光背는 寶珠形式으로 菩薩의 圓形光背와 對照的이다.

菩薩立像도 얼굴이 마멸되어 알아볼 수 없으나 눈자욱만 어렴풋이 패여져있으며 턱은 그대로 남아있다. 머리에는 三山冠을 썼다. 목에는 역시 三道가 없다. 右手는 내려서 天衣자락을 쥐고 左手는 가슴에 들어서 四、五指를 펴는데 나머지 손가락은 과손되어 手印의 形式을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나머지 손가락은 구부린 것 같으며 軍威三尊佛의 觀音菩薩의 手印을 연상케 한다. 어깨의 帔巾은 反轉하여 뻗었는데 이러한 形式은 金銅相

輪飾寶冠思惟像이나 高句麗 元吾里出土 菩薩像 등에 보인다. 양 어깨에 걸쳐 입은 帔巾에 계속하여 天衣二條가 틀없이 腹部위를 平行하여 지나가는데 뒷天衣는 左手에 걸쳐 臺座 밑까지 이르고 아랫 天衣는 右手에 뒤여져서 臺座 위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天衣의 끝처리가 용의주도하여 天衣의 길이가 양 어깨로부터 같은 길이임을 알 수 있다. 中國의 경우 이러한 帔巾은 交叉하는 天衣와 결합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反轉한 帔巾은 東魏代에 많고 北齊初期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平行하는 天衣는 北齊後期에 나타나고 있다.

下裳은 일반적인 菩薩의 下裳과는 달리 치마의 형식이 아니고 통바지처럼 처리하여서 흥미롭다. 臺座는 如來 것과 같은데 不規則의 垂直線이 線刻되어 있다. 光背는 圓形頭光이어서 如來의 것과 달리 했다. 이 두像은 頭光을 각각 지니고 있지만 크게 다시 單一光背內에 두었는데 中國의 경우는 이 형식이 北魏代의 一般形式이다.

이 菩薩像도 腹部의 二條의 天衣에 線刻衣褶이 각각 한 줄씩 짧게 처리된 외에는 衣褶이 일체 없으며 頸飾이나 釧飾 등 일체 裝飾이 배제되어 있다. 바른쪽 다리가 왼쪽 것보다 굵고 몸전체의 밖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는데 三曲 자세를 나타내려 한 의도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 蠟石板 전체의 周緣部를 보면 그것이 波狀形을 이루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圖 4-15에서 보이는 것처럼 中國佛에서는 前面에 頂上部의 天宮을 중심으로 하여 天人像들이 對稱으로 배치되어서 두 줄기의 龍樹를 뒤덮고 있는데 마치 이 나무위로 飛天들이 날아 내려오는 것 같다. 背面을 보면 정연히 증첩된 樹葉들이 보이며 그 周緣의 윤곽이 圓形인 것도 있으나 圖 12, 13처럼 樹葉의 單位에 따라 이루어진 波狀形의 윤곽도 있다. 本像의 波狀形 윤곽은 여기에 비록 龍樹의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中國의 北齊時代에 盛行하던 雙樹光背形式을 그 윤곽만 옮긴 것이라 짐작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佛像은 龍樹를 象徵적으로나마 表現한 韓國의 唯一例가 된다.

背面을 보면 全空間을 山岳文으로 메우고 있다. 그 上段과 下段은 平

面浮彫이고 中段部에는 內曲된 山岳文이 三重으로 彫刻되었다. 산능선의 흐름은 流麗하고 山形은 參差하여 부드럽고 自由奔放한 造形이 잘 어울려 있다. 最下段 양쪽에는 형태가 분명치 않은 線刻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꽃송이 같은 형태가 횡으로 누어 있고 왼쪽 것은 잘 모르겠다.

이 山岳文은 똑같은 것이 日本 倉敷市 大原美術館에 所藏되어 있는 白玉製彌勒像에서 발견된다. (圖 4, 5) 이것은 北齊의 天保三年(五五二年) 銘이 있는 趙氏一族을 위한 彌勒佛倚像으로 左右에 菩薩, 羅漢이 있는 五尊像이다. 光背는 한 쌍의 龍樹로 이루어졌는데 表面에는 天宮을 중심으로 飛天이 供養하고 있고 背面에는 龍樹 사이에 思惟菩薩이 있다. 그리고 菩薩, 羅漢의 臺座部에 해당하는 양쪽에 本像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同一의 山岳文이 四重으로 流麗하게 조각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물의 흐름을 함께 표현하였다. 이 山岳文은 모두 平面浮彫로 나타낸 것이 本像과 조금 다른데 本像에서는 기타의 모든 것은 생략하고 이 山岳文만을 확대하여 光背 뒤의 空間을 채운 느낌이 든다. 그리고 天保三年銘의 雙樹의 왼쪽편 아래에 樹葉과 함께 아직 되지 않은 연꽃송이 같은 것이 보이는데 本像背面的 오른쪽 下段에 보이는 線刻의 꽃송이 형태가 이와 같다. 이와 같은 北齊時代의 白玉像으로 上記한 東京博物館藏 思惟五尊像(圖 12, 13)과 崑崙 東洋博物館藏 樹下菩薩並立像의 背面(圖 6, 7)을 보면 나무줄기에 上昇하는 꽃송이가 線刻되어 있다. 이들은 분명히 本百濟의 佛菩薩並立像의 背面에 있는 線刻의 꽃송이 무늬와 같다. 따라서 本像의 光背形態는 北齊時代의 典型的인 雙樹光背形式에서 취했다고 보여지고 北齊의 경우 部分的으로 장식되었던 山岳文이나 꽃송이 무늬가 本像에서는 크게 변형되어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佛像의 形式을 다시 정리해 보겠다. 소위 「並坐像」내지 「並立像」의 문제와 衣褶의 문제가 크게 클로즈업된다. 並坐像내지 並立像의 문제는 매우 풀기 어려운 信仰의 背景을 가지고 있는데 曲陽修德寺出土의 一括遺物을 중심으로 그 一端을 풀어보기로 한다.



圖 5. 背面



圖 4. 樹下彌勒五尊像 北齊天保三年(552)  
日本 倉敷大原美術館



圖 7. 背面



圖 6. 樹下菩薩並立像 北齊時代  
韓國 東洋博物館



圖 9. 石造二菩薩並立像 北齊時代  
天統三年(567)



圖 8. 樹下七尊像 北齊時代 河北省 臨漳出土  
1958年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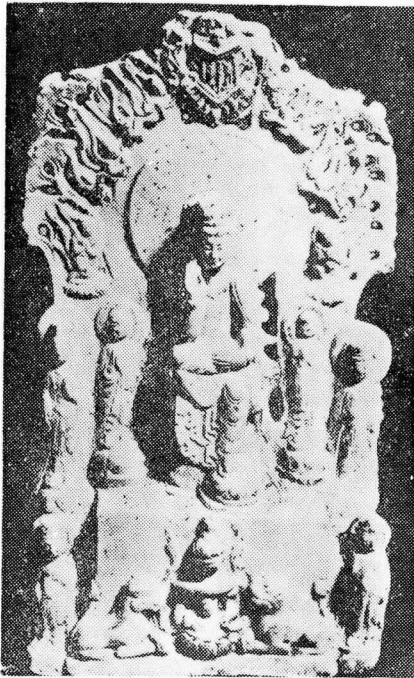


圖 11. 樹下思惟五尊像 北齊時代  
메트로 폴리탄博物館



圖 10. 樹下思惟五尊像 北齊時代  
美國個人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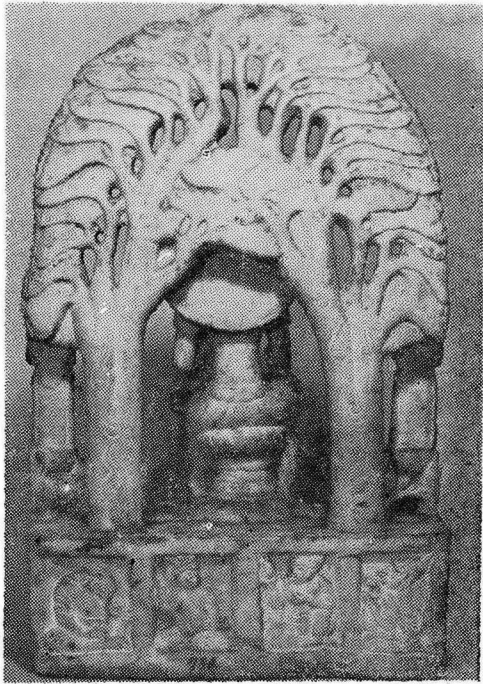


圖 13. 背面



圖 12. 樹下思惟五尊像 北齊時代  
東京國立博物館



圖 15. 樹下雙思惟像 北齊時代  
河清四年(565) 후리아美術館藏



圖 14. 樹下思惟三尊像 北齊時代  
서울國立中央博物館藏

### 三、並坐像・並立像

北齊時代의 變形된 並立像은 北魏以來의 二佛並坐像에 그 源流를 두어야 할 것이다.

法華經의 見寶塔品에 나타난 佛의 奇蹟을 形象化한 二佛並坐像은 石窟造像으로는 北魏의 雲岡石窟에 집중되어 있다. 이 形式은 雲岡文化의 象徴으로 五세기에서 六세기 極初까지 계속되어 雲岡에서 시작되어 雲岡에서 끝나고 있다. 그러나 小金銅佛은 六세기가후에도 계속되지만 北齊代에 이르러면 質的인 變化를 보여서 二佛並坐의 意味를 喪失하게 되며 材料도 白玉이 主流를 이루게 된다②. 東魏와 北齊代에 걸쳐 河北地方에 크게 流行한 白玉像 가운데 雙觀音像、雙思惟像이란 새 形式이 北齊代에 出現하는데 二佛並坐像의 時代的 永續性은 百濟에도 미치지 못하며 本像과 같은 形式을 남기고 있다. 이와 같은 並存像의 脈絡은 결국 河北地方의 白玉像에서 亂脈을 이루어 形式的 轉移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白玉像、그중에서도 河北의 定縣과 曲陽縣出土의 白玉像을 考察해 볼 필요가 있다.

白玉像은 東魏代에 시작하여 北齊代에 最盛期를 이루고 隨代에 들어와 줄어 들지만 大形化하기 시작한다. 이들 白玉像들은 대부분 河北의 定縣地方에서 出土되는데 그것은 白玉石의 産地의 中心이 定縣인 까닭이다. 最近 定縣의 서쪽에 인접한 曲陽修德寺에서 二、二〇〇여건에 달하는 白玉像이 發掘되어 이 地方의 佛像研究에 좋은 資料를 제공한 바 있다. 이 두 地方에서 集中的으로 발견되는 白玉像들은 대부분 三〇cm에서 四〇cm에 이르는 小像들뿐이며 다른 지방에는 별로 없는 새로운 形式이 出現하는데 바로 이러한 小像이란 점과 이 地方特有的 形式이란 점에서 이들 佛像을 庶民信仰의 對象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 같다③. 새로운 形式의 代表的인 것이 觀音菩薩並立像과 雙思惟像이다. 特記한 것은 並坐像보다 並立像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천은 修德寺一括出土品에서 그 斷面이 파악될 것 같다. 그 出土品中에서 記年銘이 있는 並存像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④.

東魏代것으로는 趙道成造多寶坐像(興和三年) 張同柱造多寶坐像(武定五年)

北齊代것으로는 王和王思兄弟等造多寶坐像(天保十年) 張敬遵造雙坐佛像(武平二年) 劉仰敬造雙觀音立像(大寧二年) 劉元景夫歸造雙觀音立像(天統二年) 楊僧保造雙菩薩立像(武平五年) 高市慶造雙思惟像(天統二年) 隨代것으로는 董士敖造雙佛立像(開皇二年) 張離陀造復觀音立像(開皇十一年)

唐代것으로는 張惠觀造多寶釋迦像(顯慶二年) 劉三娘等造雙身彌陀像(開元十年)

이들을 形式上으로 살펴보면 모두 左右同一形으로 對稱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本百濟像은 佛과 菩薩을 並立한 점에서 한 발자국 더 變形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東魏代의 二佛並坐像에 이어 北齊代에 들면 雙觀音菩薩立像과 雙思惟像이란 새 形式이 盛行하고 隨·唐代엔 量的으로 격감하나 새로운 形式이 다시 出現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만 이 地方에 限하지 않고 그 당시 中國의 一般的現象이라 해도 좋을 만큼 修德寺出土佛像은 그 時代相을 정확히 反映하고 있다.

다음 本像의 衣褶을 中國의 例와 견주어 살펴 본다. 佛像의 衣褶은 東魏代까지 非現實的인 복잡한 圓式的 衣褶이 一般的 形式이지만 北齊에 들면 그 中期에 새로운 北齊形式을 확립하게 된다. 北齊는 서서히 肉體의 表現을 시도하기 시작한다. 이제까지 무시했던 육체는 살이 찌면서 相對的으로 衣褶이 簡略化되어 人間的 形像을 더우게 되는데 北齊後半期에는 簡略化가 極端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면 河清三年銘 白玉思惟像(五六四年)이나 天統三年銘 白玉二菩薩並立像(五六七年)(圖9)、河北省臨漳出土透彫樹下七尊像(一九五八年出土)(圖8) 들은 衣褶이 거의 없다시피하다. 이처럼 中國의 추세와 비교하여 결론지어 보면 本像은 北齊代에 最盛한 二菩薩立像、그리고 극단으로 간략화한 衣褶形式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考察의 범위를 줄여서 北齊代佛像 가운데서도 本像과 直接관계

되는 特殊形式을 살피기로 한다.

#### 四、河北의 雙樹形式 白玉像

本像은 지금까지 고찰한 定縣·曲陽縣地方의 白玉像중에서도 그 形式的、樣式的인 直接祖型을 白玉製透彫樹下像에 두고 있다. 이것은 北齊佛에서도 그리 수가 많지 않은 特殊形式을 보여주고 있어서 本像의 形式을 최종적으로 규명해 줄뿐만 아니라 如來와 菩薩의 並存의 意味에도暗示해주는 바가 있을 것 같다. 이 特殊形式을 몇가지 열거해 보면 그 一貫된 特質이 抽出된다.

① 天保三年銘(五五二)樹下彌勒五尊像(背面·樹下思惟像) 日本大原美術館 圖 4、5

② 樹下交脚五尊像(背面·三尊中脇侍가 思惟像)클리블란드美術館藏 ⑤

③ 樹下七尊像、河北省臨漳出土 圖 8

④ 樹下思惟五尊像 美國個人藏 圖 10 ⑥

⑤ 樹下思惟五尊像 메트로폴리탄博物館藏 圖 11

⑥ 樹下思惟五尊像 東京博物館藏 圖 12、13

⑦ 樹下思惟三尊像 서울國立博物館藏 圖 14

⑧ 天保八年銘(五五七年)樹下思惟三尊像

⑨ 河清四年銘(五六五)樹下雙思惟像 후리아美術館藏、圖 15(河清四年은 없으므로 실제로는 天統元년에 속한다) ⑦

⑩ 天統二年銘(五六六年)樹下雙思惟像

⑪ 武平七年銘(五七七年)樹下雙思惟像

以上三點、曲陽修德寺出土 ⑧

⑫ 樹下思惟像 후리아美術館藏 ⑨

이들은 지금까지 學界에 소개된 樹下形式의 佛像중에서 完形이나 原形을 넘어서 推定해 볼수 있는 것들을 추려본 것이다. 미비한 資料에서 어떠한 사실을 抽出해 내는 것은 實驗을 내포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남달아가는 몇가지 現象의 잠려지는데 추후 새로운 資料가 나오는 대로

修正하려 한다.

첫째、雙樹를 엮어서 形成한 特異한 光背形式은 北齊代에만 있다.

둘째、이 雙樹形式은 北魏以來 樹木을 同伴한 思惟像의 形式에서 발

견한 것이다.

셋째、北齊初期(天保期)에는 彌勒椅像五尊像、交脚五尊像、七尊像등

이 前面에 配置되다가(이 경우엔 思惟像이 背面에 後退하여 조각되어 있다) 이것이 발전하여 後面에 있던 思惟像이 前面의 主尊의 자리에 代

置되어 思惟三尊像、혹은 思惟五尊像의 形式을 취하게 되고、北齊後半

期(天統期、武平期)에는 雙思惟像이 盛行하고 있다. 이 사실들을 한 마

디로 바꾸어 말하면 雙樹形式은 반드시 思惟像과 結合되어 있다. 以上

세가지 점들은 相互間 發展的 特性들이어서 하나의 推定이 事實로 될 可

能性이 있다. 二、三의 例外(形式은 다르나 銘文內容이 없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있긴 하지만、雙樹形式에는 대부분 思惟像과 彌勒像

이 同伴되므로 雙樹(龍樹)와 思惟像과 彌勒像이 三者가 연결되어 있

는 重要한 사실이 看取된다. 그런가답에 이 特殊形式의 범주안에서는

思惟像이 彌勒佛의 前身인 彌勒菩薩인 가능성을 暗示해 주고 있다. 그

래서 前面에 彌勒佛의 배치될 경우는 背面에 思惟像을 두고 前面에 思

惟像을 둘 경우는 彌勒佛이 제외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彌勒佛과 思惟像

의 同質性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思惟像의 發展的 樣相을 보여주는 것이

다. 北齊時代에는 太子思惟像의 銘文이 있어서 太子像으로서의 思惟像

이 北魏以來 北齊時代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이 雙樹光背의

形式에서는 彌勒菩薩로써의 思惟像을 나타내고 있다고 斷定해도 좋을 것

같다. 이 事實은 本像의 佛菩薩並立像의 尊名의 問題를 뒷받침해 줄 것

도 같다. 지금까지 자세히 比較·分析한 것 처럼 本像은 北齊時代의 特

殊形式을 忠實히 反映하고 있으므로 本像의 佛菩薩의 尊名도 彌勒佛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本章의 內容이 된다.

彌勒佛은 반드시 椅像으로、彌勒菩薩은 반드시 交脚形式 혹은 思惟形式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中國에서는 如來立像(通印)으로도 彌勒佛

을 나타내기도 하고 韓國에서도 神仙寺磨崖佛처럼 如來立像으로 彌勒佛을 나타낸다. 彌勒菩薩도 立像으로 나타낼 여지가 中國에는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本像의 佛菩薩立像을 지금까지 비교 검토한 雙樹光背形式의 佛像과 관련하여 彌勒菩薩을 前面에 함께 表現한 것이 아닐까 한번쯤 推定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 北齊時代의 佛像들 특히 河北의 定縣과 曲陽縣에서 出土된 佛像들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여러 變形들이 出現하여 있고, 이것이 다시 百濟에 들어와 再次 變形하여 本像과 같은 佛像形式이 成立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表裏관계에 있던 彌勒佛과 彌勒菩薩이 前面에 共存하게 되고 北齊時代에 流行하던 並立像의 영향을 받아 佛菩薩並立像이란 희귀한 形式이 또 하나의 地方樣式으로서 가능했는지도 모르겠다.

## 五、結語

지금까지 여러 면에서 비교 검토하면서 살펴왔듯이 本像은 北齊時代 河北方의 白玉像중에서 雙樹光背形式에 그 源流를 두고 있음이 확실하고 그 形式을 基本으로 하여 많은 省略과 擴大 그리고 變形을 이루어졌음을 알았다.

本像은 심한 變形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基本形式을 充實히 따르고 있는 점에서 中國의 六世紀中葉과 큰 時代的 差를 느낄 수 없다. 따라서 本像은 百濟의 六世紀後半 威德王代(五五四—五九七)에 成立되었다고 보아 좋을 것 같다.

이 像은 北齊代의 一定한 장소의 特異한 形式을 反映하고 있으므로 佛像形式의 受容과 變貌를 파악하는 데는 더 없는 좋은 資料라 생각된다. 그 細部에 있어서 어떠한 變貌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本像의 形式分析에서 基本的形式은 다르지만 상당한 省略이 이루어졌음이 이미 밝혔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不合理한 省略이고 必然的인 省略이 아닌 점에서 그 당시 韓國의 中國佛을 어떻게 이해하였나 하는 점에서는 悲觀的이라 할 수 있겠다. 즉 그 佛像形式과 함께 그 宗教的背景을 정확히

받아들였는지는 의문이 잔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樹木의 形式이 省略되고 단지 그 윤곽만 취한 것이라든지 前面에 있어야 할 飛天像의 省略部分의 諸細部가 대부분 省略되고 있는데 비해 中國佛에서 극히 一部分을 차지했던 山岳文이 本像에서는 光背 뒷면의 全空間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中國에는 없는 佛菩薩並立像이란 새 形式이 創出된 것은 한편 우리나라가 단순히 中國佛의 模倣에 그친 것만은 아닐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省略과 擴大, 그리고 새 形式의 創出이란 相反된 動機를 中國佛과 비교하여 本像에서 確認해 볼 수 있다. 이러한 造形性은 百濟佛에서는 보기 드문 것으로 오히려 古新羅의 感覺과 통하는데 北齊佛樣式이 이러한 百濟佛을 통하여 古新羅에 流入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法量 總高·一六、二cm 幅·一cm 光背厚·一、〇cm

如來像·總高一、八cm 像高一〇、三cm 臺座高一、六cm

菩薩像·總高一、四cm 像高九、八cm 像坐高一、六cm

兩像의 浮彫 약 一、五cm

## 註

- ① 이 佛像은 一九七三年 慶州市內 古美術商店에서 筆者에 의해 수습되어 서울 國立中央博物館에 收藏되었다. 지금 扶餘博物館에 陳列하고 있다.
- ② 松原三郎「金銅二佛並坐像考—특히 北魏代를 주로 하여—」一九六六年 中國佛教彫刻史研究所收 p. 82
- ③ 松原三郎「北齊의 定縣樣式白玉像—특히 半跏思惟像에 대하여—」一九六六年 中國佛教彫刻史研究所收 p. 142
- ④ 楊伯達「曲陽修德寺出土紀年造象의 藝術風格與特征」一九六〇年 故宮博物院 刊總二期 p. 51, 52
- ⑤ 松原三郎 前掲論文(註④) p. 136
- ⑥ Siren 「Chines Sculpture」 vol. III—N 一九二五年 plate 247B
- ⑦ 例 5, 7, 6, 前掲書(註⑥) plate 243B, 244, 245 參照
- ⑧ 楊伯達 前掲論文(註④) p. 54 以下 圖版參照
- ⑨ 中國美術 第三卷 彫塑 講談社 一九七二年 圖版四十 (國立慶州博物館 學藝研究官)